



제2의 도약 통해 건설 역사 다시 쓴다

현대건설(주)

현대건설이 새로운 도약을 위한 재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한 해 유동성 위기를 겪었던 현대건설은 2001년 6월에 있었던 약 2조 7,000억원의 출자 전환, 유상 증자 및 CB 발행에 이어 12월에도 1,806억원의 추가 출자 전환을 통해 재무 안정성을 굳건히 했다. 또한 자구 이행도 순조롭게 이루어져 3,837억원의 자구 실적을 기록, 당초 계획을 초과 달성했으며, 2002년에도 3,500억원의 자구를 지속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5월 새로이 취임한 심현영 사장은 '변화와 혁신'이라는 가치를 내걸고 구조 조정을 마무리하고 출자 전환 및 유상 증자 등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으며, 강도 높은 자구와 경영 혁신을 통해 대외 신인도를 회복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현대건설 재건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유동성 위기 발발 이후 철저히 수익성과 현금 흐름 위주의 수주 전략을 펴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신인사 제도, 전문 인력 역량 강화 제도 등을 실시해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며 전문 건설업체로의 제2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 14위, 아시아 1위 건설업체

이러한 재건의 움직임은 다양한 지표들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8월 미국의 세계적인 건설 전문지 <ENR(Engineering New Record)>에 의해 세계 14위, 아시아 1위의 건설 업체로 선정됐다.

이는 지난 1999년 19위에서 5계단 상승한 것으로 향후 세계 10대 건설 회사 진입 전망을 밝게 하는 것이다.

한편 한국신용평가(주)와 한국신용정보(주) 등 신용 평가 기관들이

각각 8월과 12월에 현대건설의 신용 등급을 투자 적격(BBB-)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대외 신인도 제고는 물론, 직접 금융 시장에서 원활한 자금 조달을 가능케 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수주와 매출에서 국내 1위를 고수한 데서 보듯 현대건설이 유동성 위기를 넘기고 최고의 건설 회사로 거듭나고 있는 지표는 거듭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재건의 바탕에는 국내외 ERP 정착을 통한 투명 경영 실천과 자재 구매 제도 개선, 품질 경영 의식 정착에 바탕한 선진 경영 실천이 자리하고 있다.

올해 현대건설은 수주 목표를 국내 6조원, 해외 18억달러로 잡고 수익성과 안정성 위주의 수주 전략으로 최고의 성과를 달성해 흑자 원년의 해를 실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대건설은 첫째,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실천해 나가

고, 둘째, 고객 중심 경영을 하며, 셋째, 전문 인력 강화를 시행할 계획이다. 넷째, 현장 중점 관리를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고, 다섯째, 예산제도 정비 및 원가 절감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현대건설은 세계적인 건설업체 및 디벨로퍼와 협력을 강화하고, 신기술 개발에 역량을 모을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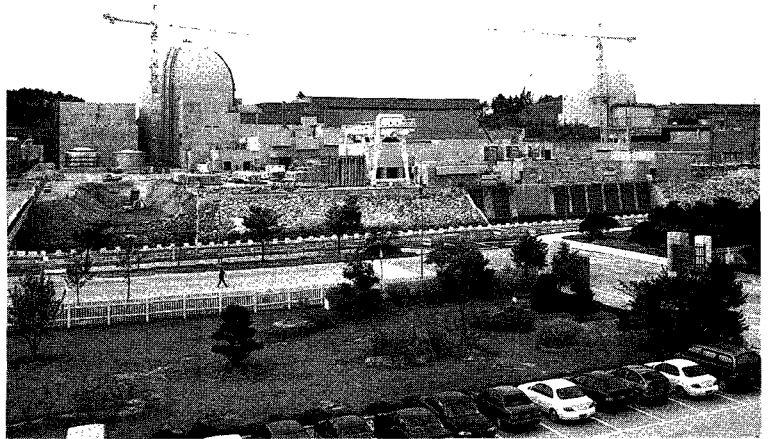
원전 건설 분야의 현대 건설 위상

1. 최대의 원전 건설 경험 업체

현대건설은 1971년 국내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 건설 공사에 참여한 것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가동중인 원자력발전소 16기 중 10기를 일괄 시공하였고, 현재 건설중인 원자력발전소 6기 중 영광 원자력 2기와 KEDO 원전 2기에 주간사로서 참여하고 있다.

한국 표준형 원전(KSNP)의 효시인 영광 3·4호기 건설 공사의 성공적인 완수를 통하여 시공 기술 능력 100% 자립을 이룩하였고 이는 국내 원전 시공 능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었음은 물론 순수한 국내 기술력으로 최상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한 원전 건설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현대건설은 원자력 연구를 위한 다목적 연구로와 관련 시설을 1995년에 완공하였고, 우리나라



현대건설은 1971년 국내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 건설 공사에 참여한 것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가동중인 원자력발전소 16기 중 10기를 일괄 시공하였고, 현재 건설중인 원자력발전소 6기 중 영광 원자력 2기와 KEDO 원전 2기에 주간사로서 참여하고 있다.

최초의 원전 설비 개선 공사인 고리 원자력 1호기 증기발생기 교체 공사를 1998년 12월에 완공함으로써 원전 보수 및 성능 개선 사업에서도 선도적인 기술력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2. 최상의 원전 품질 확보

현대건설은 1970년대부터 품질 경영을 최우선으로 강조하여 완벽한 원전 시공의 밑거름을 이루었고, 품질보증실을 사업본부와 별도로 사장 직속 기관으로 운영, 감사권을 갖게 함으로써 품질 검사가 아닌 품질 감사를 실시하여 원전 시공의 신뢰성과 품질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고리 1호기 건설 과정에서 전체 산업계를 통틀어 국내 최초로 QC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1980년대 QA 개념을 확립함으로써 국내 건설 산업계의 품질 마인드를 선도해 오고 있다.

미국기계학회(ASME)에서 발행하는 원자력 관련 인증서로 NA(설치), NPT(부품 제작), NR(원자력 보수)을 보유하고 있으며, KEPIC 인증서인 MN(원자력 기계), EN(원자력 전기), SN(원자력 구조)과 설계에서 시공 및 사후 관리까지 전분야를 망라한 ISO 9001을 1993년 취득하여 더욱 확고한 품질 경영을 하고 있다.

3. 최고의 인적 자원 보유

최고의 기술력과 경험을 보유한 인력은 현대건설 제일의 자산으로서 지난 30여년간 원자력 건설 분야를 선도한 노하우가 최상의 원전 품질을 보증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폭 넓고 다양한 원자력 공사 경험을 쌓은 1,000여명의 기술 인력으로 어떠한 형태의 원자력 공사에서도 최고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한 시설을 건설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



현대건설은 꾸준한 인력 개발과 교육을 통하여 임직원 개개인의 자질 향상을 꾀하고 있다.

1980년 미국의 EBASCO사와의 기술 전수 계약을 맺어 선진 원전 시공 기술 및 품질 관리 기법을 도입하였고, 1995년 미국의 백텔에서 실시한 사업 관리 교육을 통해 시공 전반에 걸친 효율적인 관리 능력을 확보하였으며, 특히 2001년 한국원자력산업회의가 주관한 원자력 교육에 80명이 참가하여 실무 경험에 이론을 겸비한 인력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전문 인력 역량 강화 제도와 경력 관리 계획을 개인별로 시행하여 어느 분야에서나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중점 추진 사업 계획

1. 신규 원전 건설의 주도적 역할 수행

2002년에는 한국 표준형 원전(KSNP) 4기가 신규 발주될 예정이다.

현대건설은 누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경수로뿐만 아니라 중수로 일괄 시공 실적을 보유한 국내 유일의 업체이다.

원자력발전소는 대규모의 인력 장비 및 자재가 투입되고 수 만개의 공종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종합 현장으로서 완벽한 사업 관리

를 통해서만 품질 시공과 안전 시공이 가능하다.

그 동안 원전 건설 수행중 발생한 문제점, 각 공종간 간섭 사항에 대한 분석 및 대책 마련은 물론 신기술 신공법에 대한 연구 노력을 A/E와 공동으로 수행하여 최적의 공기를 맞추기 위한 연구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더 나은 품질과 안전성 확보에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2. 영광 5·6호기의 성공적 완공

영광 5·6호기는 현재 건설 공정을 99%로 공사가 마감되는 단계로 금년은 지난 6년간 노력의 결실을 맺는 중요한 시기이다.

당초 공사 착수가 인허가 관련 문제로 1995년 12월에서 1996년 9월로 연기되어 전체 준공일도 순연될 예정이었으나, 발주처와 시공사간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으로 현재 6호기는 시공에서 2개월, 시운전에서 2개월 전체 4개월 단축이 예상되고 있다.

이는 풍부한 시공 경험, 우수한 인력 및 뛰어난 기술력 없이는 어려운 일로 또 한번 현대건설의 우수성을 알리는 귀감이 될 것이다.

5호기는 2001년 10월 핵연료 장전 완료 후 2002년 4월 말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공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6호기는 2002년 1월 말 고온 기능 시험을 착수하여 2002년

12월 말 준공을 위해 현재 Room Turnover 및 시공 전반에 걸친 마감 작업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수행하고 있다.

3. KEDO 원전 1·2호기 주간사 업무 수행

KEDO 원전 1·2호기는 지난 1997년 8월 북한 함경남도 금호 지구에서 착공식이 개최된 이후 부지 정리 공사 및 각종 부대 설비 공사가 각 공종별로 완료 또는 진행중이며 주설비 공사 또한 2001년 9월 착공하여 현재 전체 공정률은 17%로 순조롭게 진행중이다.

KEDO 원전 공사는 북한이라는 특수 지역에서 남북한 및 제3국 근로자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대단위 공사이다.

자재 수송 및 인력 관리, 그리고 사업 관리 전반에 걸쳐 국내 여타 현장보다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현대건설은 그동안 쌓아온 기술력과 경험으로 주간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다.

선행 호기의 주요 설비 설치 공정 Trend와 중요 공정 지연 원인 분석을 통하여 개선 대책을 수립 적용함은 물론, 사전에 각 단위 공종간 간섭 사항을 미연에 파악 조치함으로써 자재와 장비 및 인력을 최적으로 투입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철저한 안전 관리를 위해 유사 작업 수행시 검토되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 사고 발생 유형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에 착수할 것이며, 직원 및 근로자에게 철저한 품질 시공만이 최선임을 인식하도록 하여 자발적인 설계서 및 시방서에 입각한 시공이 되도록 할 것이다.

4. 해외 원전 시공 기술력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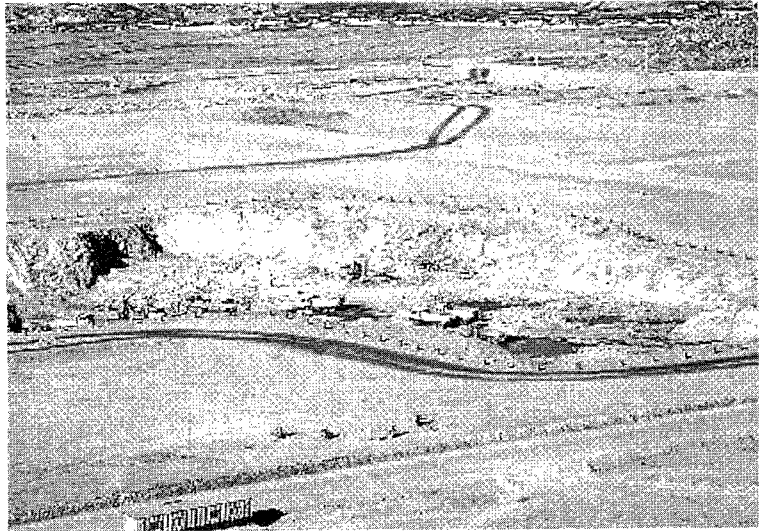
현대건설은 경수로 및 중수모를 포함한 다양한 원자력 설비를 연속적으로 시공한 세계적인 건설업체로, 풍부한 건설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 원전 건설 시장에서도 선진 건설 회사와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수 담수화용 중소형 원자로(SMART) 참여를 통한 해외 시장 개척 및 한국 표준형 원전(KSNP)의 베트남 공동 진출 등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그 동안 쌓아온 원전 건설 경험을 체계화하여 자료화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외국에 기술 자문 및 Construction Management 참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5. 원자력발전소 설비 개선 사업 참여

본 사업은 1980년대 이전에 준공한 원자력발전소의 발전기 및 증기



현대건설이 주관사로 참여하고 있는 KEDO 원전 1·2호기 주설비 공사 기초 굴착 작업 현장. KEDO 원전 1·2호기는 지난 1997년 8월 북한 함경남도 금호지구에서 착공식이 개최된 이후 부지 정리 공사 및 각종 부대 설비 공사가 각 공종별로 완료 또는 진행중이며 주설비 공사 또한 2001년 9월 착공하여 현재 전체 공정률은 17%로 순조롭게 진행중이다.

발생기 등의 기기를 교체하여 출력을 증강시키고 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으로써, 당사의 독보적인 기술력과 업계 최고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장이 될 것이다.

현대건설은 고리 1호기 증기발전기 교체 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가동중인 원전의 기기 해체 및 재설치 공사에도 적극 참여하여 현대건설의 위상을 새롭게 다질 것이다.

맺음말

현대건설은 2001년 10월 원자력 공사의 효율적인 수행과 원자력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원자력사업단을 발족하였다.

이는 내부적으로 효율적이고 생

산적인 조직 운영과 기술력 통합 관리를 통한 경쟁력 확보와 더불어 대외적으로 원자력 사업 추진의 일관성 및 시장의 요구에 발빠른 대처로 발주처를 포함한 고객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현대건설은 시공 위주의 업무에서 Engineering, Procurement로 범위 확대를 통한 원자력 발전소 EPC 수행 능력 확보에 최대의 역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 건설 시장에 진출하여 국가 발전의 일익을 담당하였던 옛 현대건설의 위상을 되찾아 선진국 대열에 안착하기 위한 온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고자 현대건설 전 임직원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또 한번의 주역이 되고자 함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